

Zero City – 스토리북

인류의 마지막 희망, 탄소 제로 도시를 건설하라

A Game by SUPERNOVA





제로 시티: 희망을 건설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글쓴이: SuperNova



모든 것이 풍족해 보였던 메가시티.

하지만 화석 에너지와 공장의 까만 연기는

하늘을 회색으로 만들었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결국 지구는 너무 아파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태풍이 도시를 휩쓸고,
어떤 곳은 땅이 바싹 마르는 가뭄이 오고,
또 어떤 곳은 모든 것을 푹푹 얼리는 폭설이 내렸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수연 언니와 수연오빠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도시, ‘제로시티’ 가 필요해!”

그때, **SuperNova**가 나타나 우리에게 희망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바로 지구를 아프게 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

SMR(Smart Modular Reactor)이었어요.



“이제 이 위대한 Zero City를 이끌고 성장시킬 새로운
디렉터가 필요해!”

수연 언니가 나를 보며 말했어요.

나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제로 시티의 새로운 총괄 디렉터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제로시티의 첫 번째 디렉터가 되고
첫번째로 수원 오빠와 함께 도시의 심장이 될
멋진 '에너지 클러스터' 를 만들었어요.

태양과 바람, 그리고 SMR이 조화를 이루어
지구를 아프게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곳이랍니다.



“와, 신기하다!” 에너지 클러스터가 완성되자,
반짝이는 노란색 금화 **노바**(NOVA)와
파란색 방패 모양에 S 자가 빛나고 있는 **슈퍼**(SUPER)가
떠올랐어요.

노바는 도시를 크게 만들고, 슈퍼는 지구를 건강하게 만든대요.



우리는 반짝이는 노바를 모아 제로시티의 첫 번째 집을
지었어요.

“노바가 더 필요하면 이 게임을 해봐!”
수연 오빠가 재미있는 ‘에너지 길이기’ 게임을
알려주었어요.

SMR의 전기를 불이 깨진 집집마다 이어주면 노바를 더
빨리 모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이웃들이 창문으로 우리에게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고마워요, 제로시티에 살게 해줘서!”



그때, 수연 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어요.

“디렉터님, 이것 좀 보세요. 지구가 뜨거워져서 저 멀리
북극곰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화면 속 북극곰은 아주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로시티를 성장시키면 탄소배출량이 낮아져요
수연언니가 얘기해주었어요.”

수연오빠가 “탄소배출량이 줄면 슈퍼를 많이 모을수가
있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말에

우리는 친구들과 힘을 합쳐 슈퍼를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화면 속 지구온도계 누름이 조금 내려가고,
북극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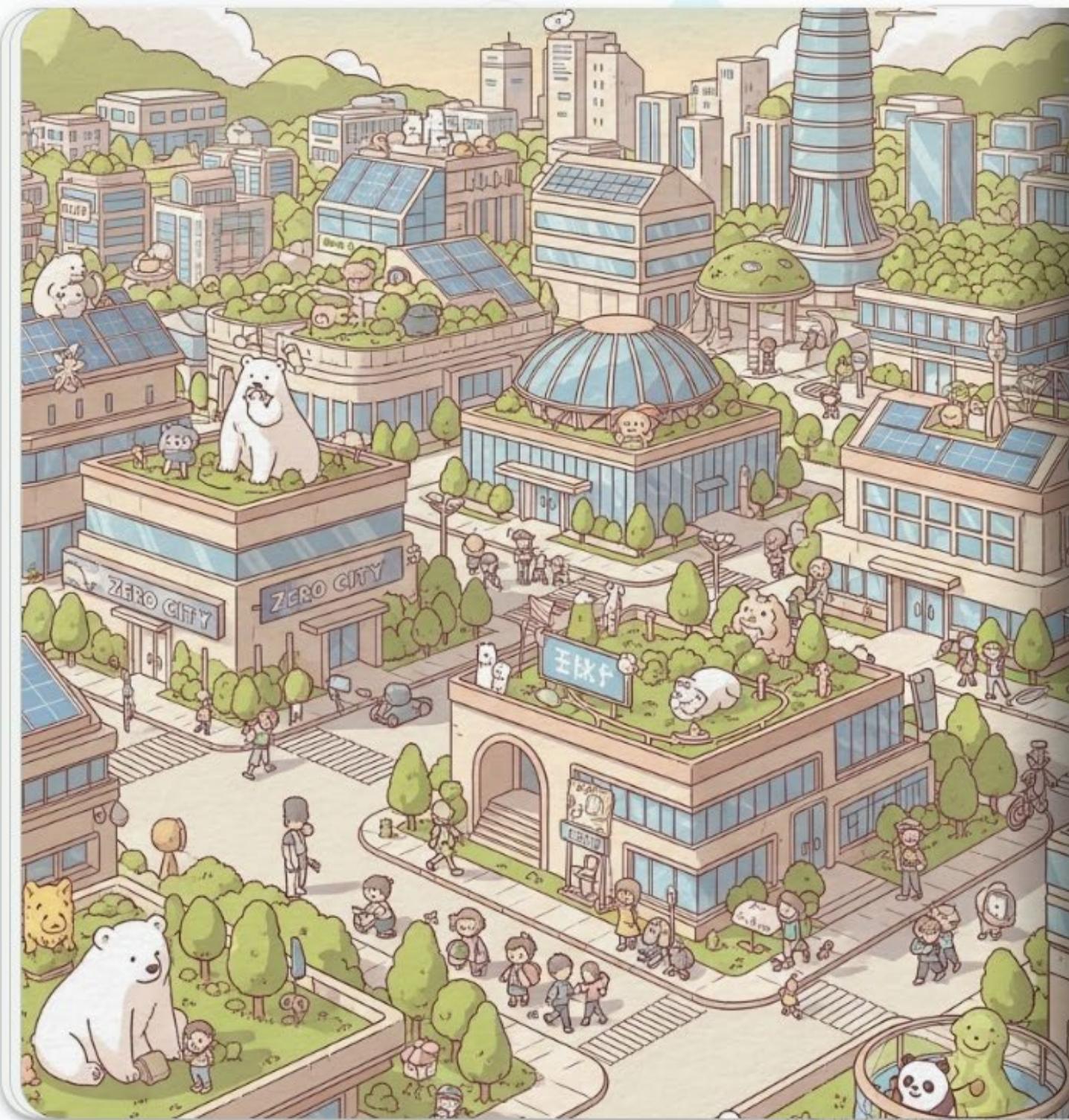


“우리가 해냈어!” 지구의 온도가 조금 낮아지자,
갈 곳 없던 아기 북극곰을 제로시티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제로시티에 만들어진 작은 동물목장에서
아기 북극곰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약속했어요. 제로시티를 더 멋지게 만들고,
슈퍼를 더 많이 모아서,
힘들어하는 모든 동물 친구들을 구해 주겠다고 말이에요.



제로시티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멋진 도시를 만들고,
어떤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손길에 달려 있답니다!